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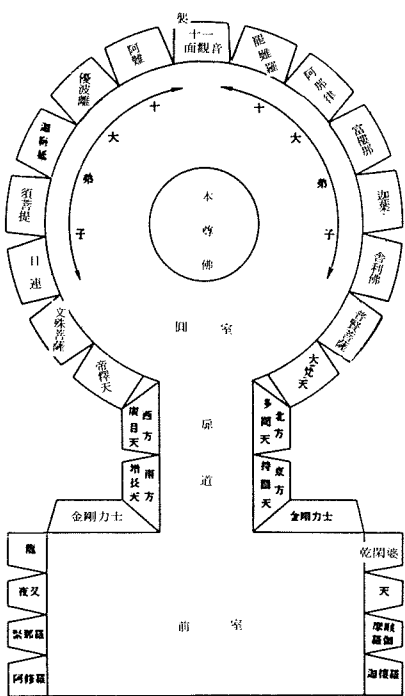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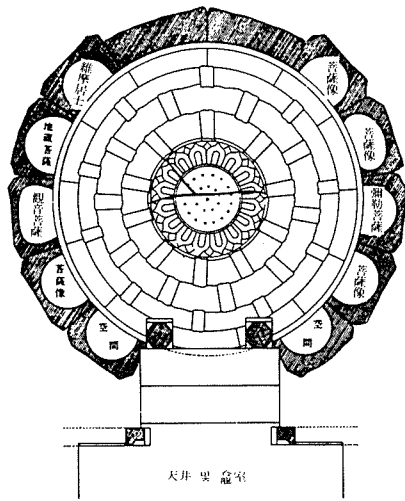
# 吐含山 石窟庵 小考

崔富得

建築士事務所 空間構成

A Study Seokulam Grotto on Mountain Toham

by Choi, Bu-Deuk



(그림 1) 석굴암의 기본구조(彫像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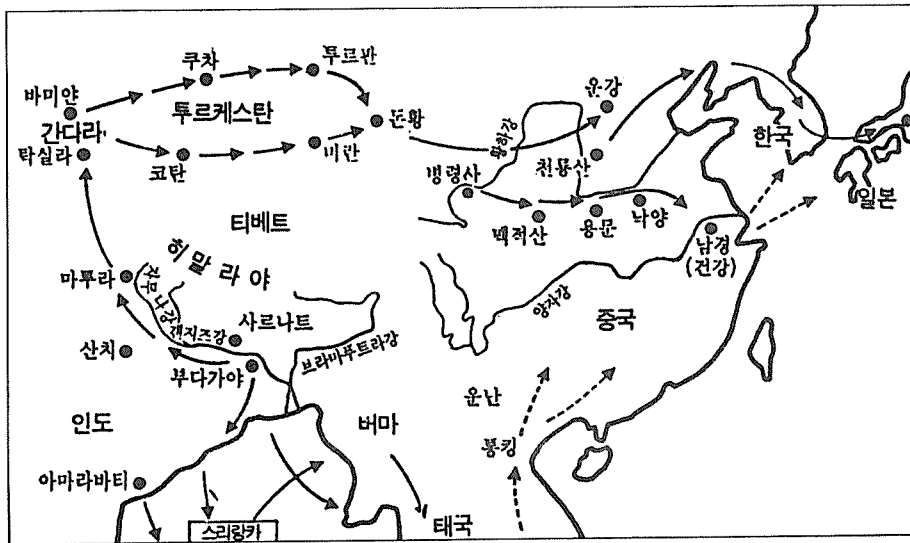
## 序

미술사가 작품으로서의 대상을 벗어날 때 더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미학이 개념에만 머무를 때 그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함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적 대상으로서의 미술작품을 다루는 미술사가 “美”라는 개념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일반 경험과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미술작품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연구와 미적 대상으로서의 연구의 두 발판을 딛고 출발해야 하며, 그 대상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 그 대상과 그 제작 주체에 관계하는 미술사적 연구가 우선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에 그 미술작품속에 내재한 “美感的 理念들을 現示하는 能力”으로서의 “精神”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술작품이 그 실증적 관계에 의해서만 파악된다면 조역사적인 미적 가치를 그 주요한 특성으로 하는 미술작품이 완전히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석굴암에서 단지 순수 취미만 파악하고자 함이 아니고, 가능하면 석굴암의 전체를 찾는데 그 궁극목적에 있다면, 表象力의 능력을 향상<sup>2)</sup>시키기 위해 실증적 관계를 찾는 미술사적 연구와 미감적 이념들을 내재한 정신을 찾는 미학적 연구가 함께 되어야 함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또한 무수히 찬탄되는 석굴암의 각

조각들이 단지 각개의 조각물로서만 파악되어서는 안되며, 석굴암 전체, 각 부분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석굴암에 관계하는 모든 시간·공간적인 관계들 까지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석굴암의 각 구성요소들은 함께 관계하는 공간속에서 더욱 가치있게 되는 바 本考에서는 본존불과 35개<sup>3)</sup>의 조상들을 수용하고 있는 건축적 공간으로서의 석굴암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석굴암 原型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나 복원된 현재의 상태를 그 대상으로 하되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있는 전실 목조건물은 제외하며, 일제 중수시에 첨가한 것으로 판명된 입구 석주 상부의 아치형 인방석도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림 1, 37~40 참조)

## 1. 美術史의 比較 分析

불교사원들은 불교를 도입한 각 지역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발전형태는 발생론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각 지역의 사원들은 실제로 고대 인도의 사원과 기능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 건물의 디자인은 전혀 다른 원형에서 파생한다. 즉, 중국사원은 독립적인 노선을 따라 발전하고 동부아시아의 문화권내에서는 여러가지 변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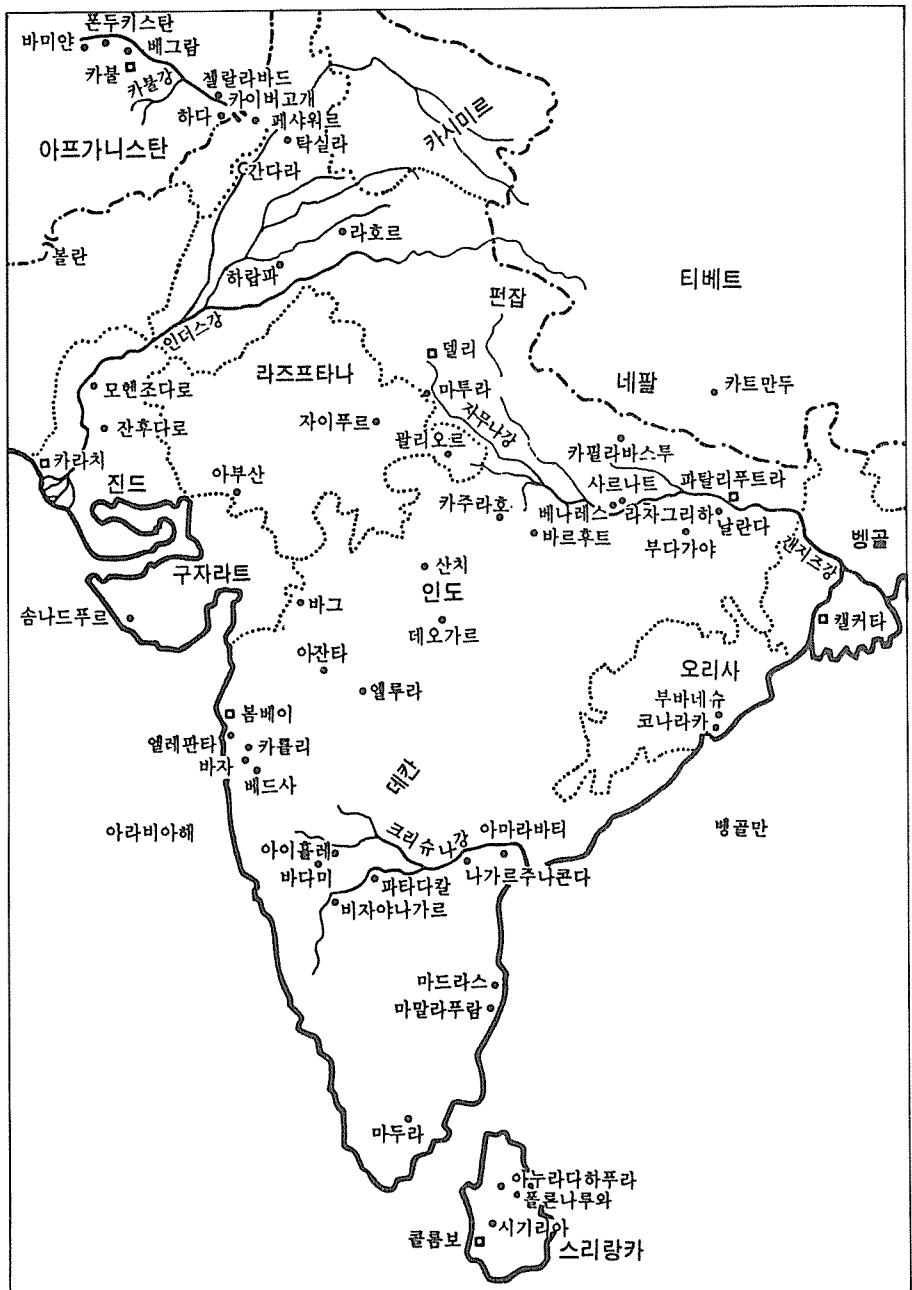


(그림 2) 불교의 전파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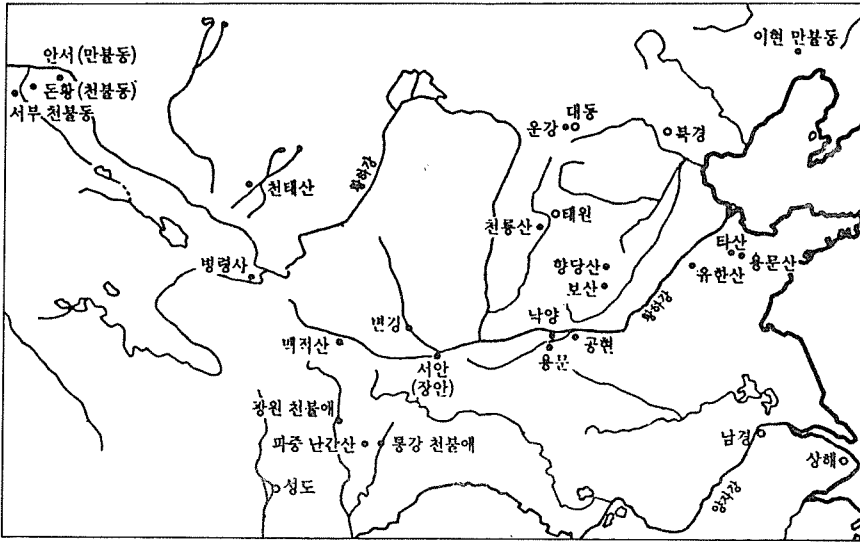
나타나는 것이다.”

석굴암 창건 당시의 신라불교는 멀리서 인도로부터 가까이는 고구려·백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석굴암의 연구에 있어서는 인도·중국등의 先行 석굴사원이나 기타 관련자료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그림 2, 3, 4, 참조) 고대 인도로부터 불교사원은 차이티야(Chaitya)와 비하라(Viharas)로 구분되었는데. 차이티야의 원의미는 “사리없는 탑”이란 뜻이며, 초기 차이티야 사원의 예배대상이 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차이티야 사원은 신성한 탑이나 불상을 봉안한 예배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기도와 의식만을 행하는 예배당적인 석굴사원이란 뜻이다. 그에 반하여 비하라 사원은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수도하던 수도원적 석굴사원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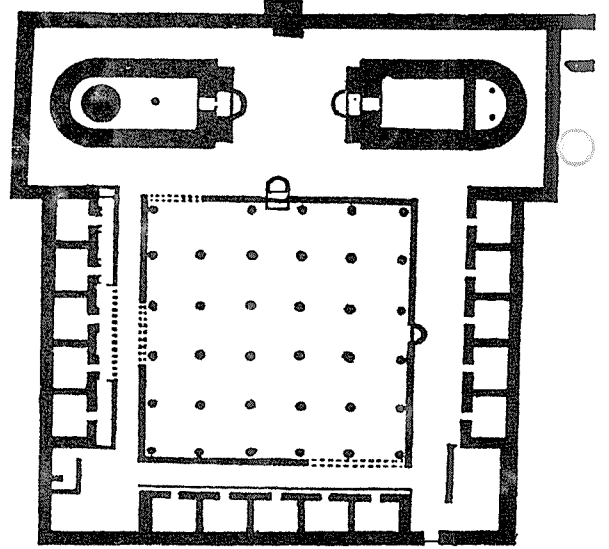
이러한 석굴사원들의 시원은 자연동굴이었으나 승단이 확대하여 수요와 기능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인공적으로 석굴사원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다.<sup>5)</sup> 그러한 변천과정에서 차이티야 사원에 봉안한 탑은 점차 불상으로 대체되게 되는데(그림 5)에서 보면 동일사원내에 두개의 예배당이 마주보고 서있어 각각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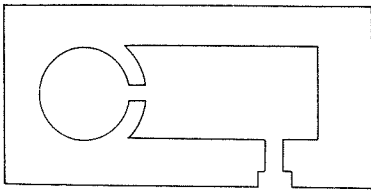
(그림 3) 인도 석굴사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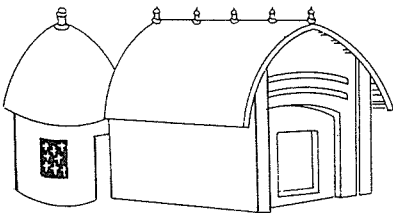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석굴사원의 분포



〈그림 5〉 나가트주나콘다의 석굴사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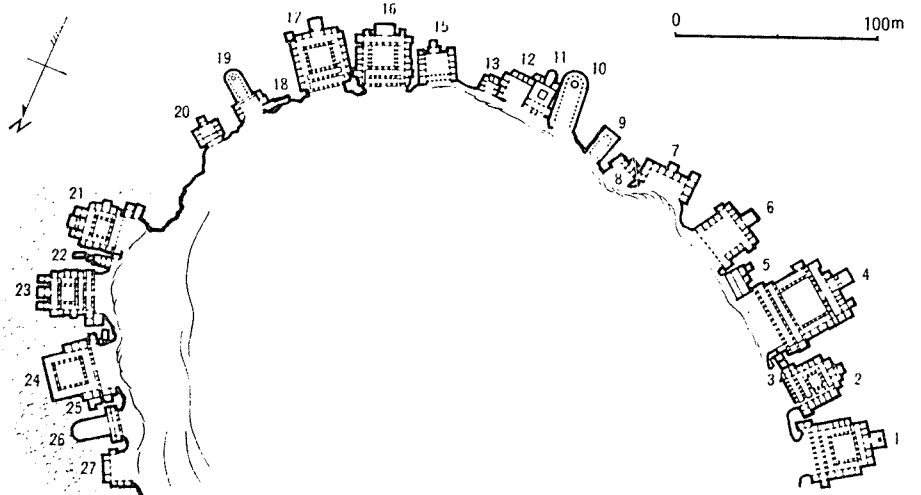


바라바르 석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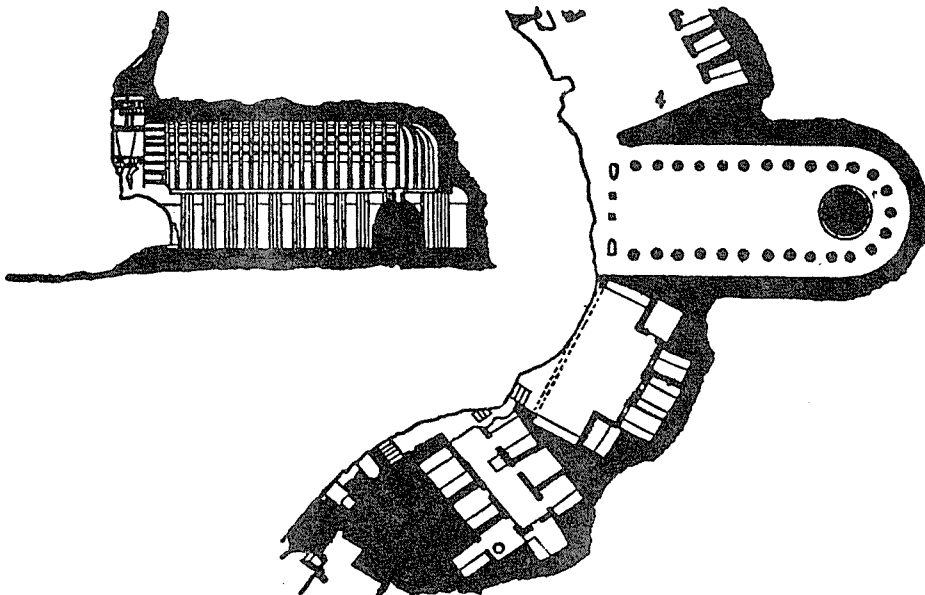


바라바르 석굴 입면 목조 복원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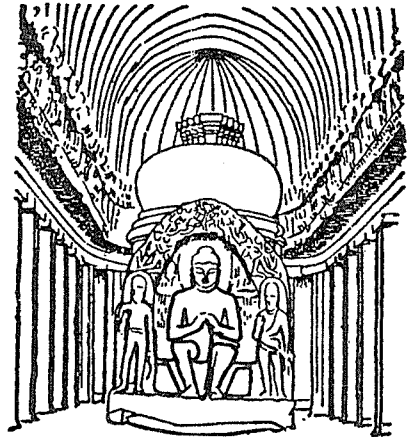
〈그림 6〉 인도 바라바르 석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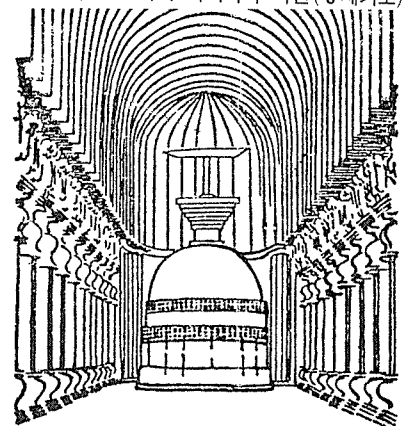
〈그림 7〉 인도 아잔타석굴사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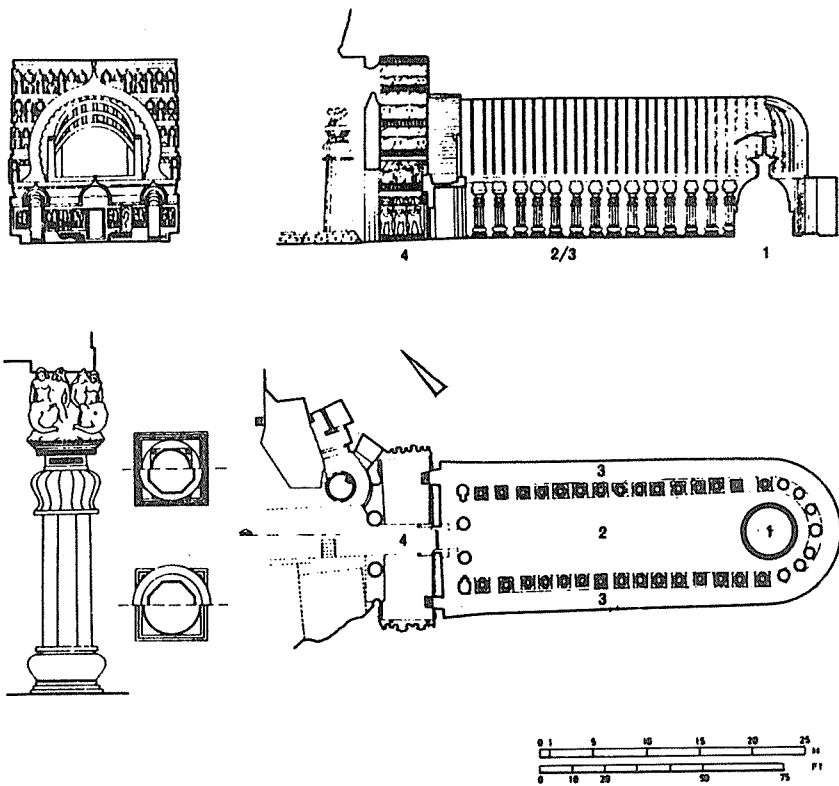
〈그림 8〉 인도 바자의 차이타야사원(기원적 약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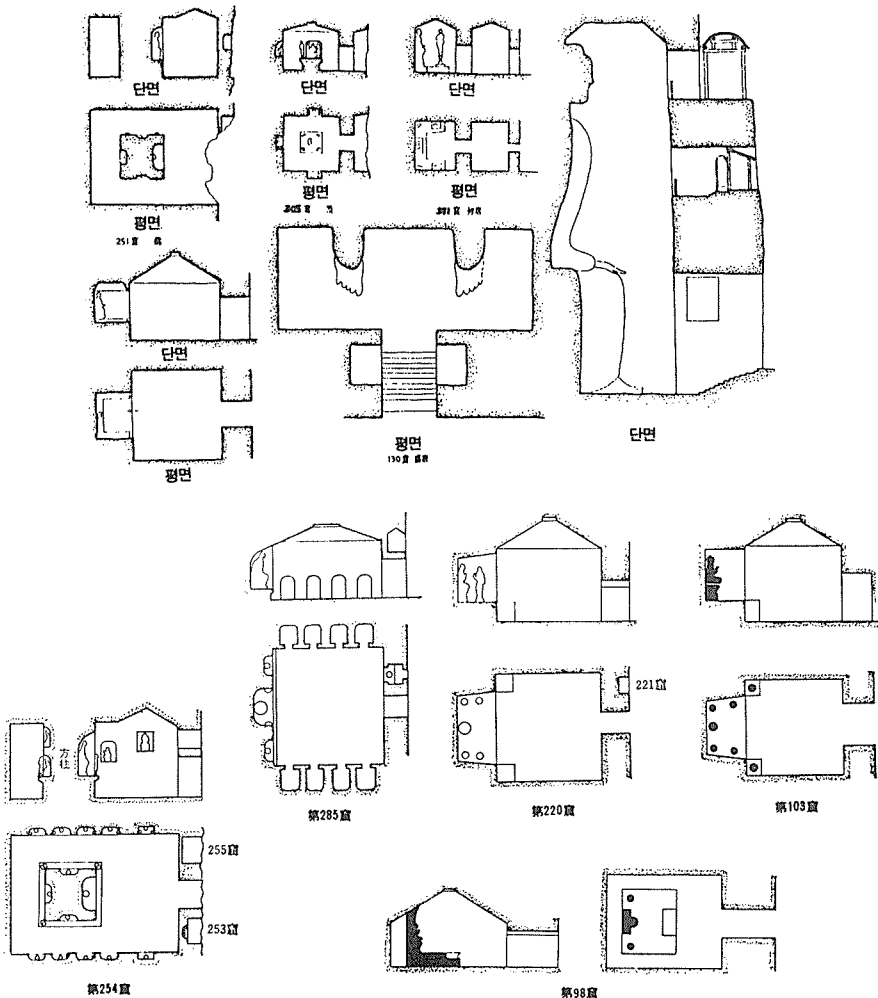
〈그림 9〉 엘로라의 차이타야 사원(8세기초)



〈그림 10〉 칼리의 차이타야사원(120년경)



(그림11) 칼피의 차이타야 사원, 평면·입면·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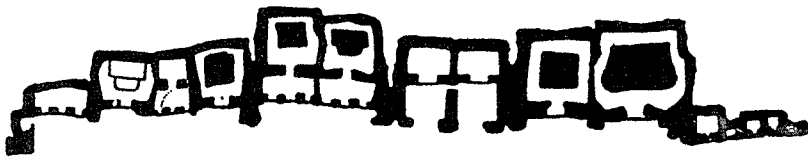
(그림12) 중국 돈황의 석굴사원

탑을 하나는 불상을 봉안하고 있어 대체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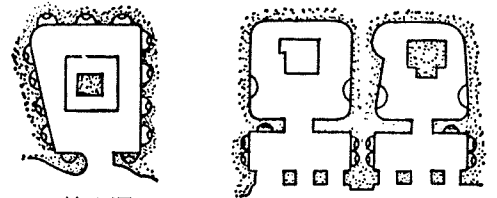
그러나 축조방법에 있어서 석굴암은 인도나 중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의 고분축조방법과 여러모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석굴암은 불상으로 대체된 후의 차이티야 사원의 한 형태로서 인도·중국의 석굴사원과 당시 우리나라 고분에서 영향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석굴암 각 부분별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 ○ 全體空間의 構成

기본평면은 前方後圓식으로 고대 인도의 바라바트 석굴(그림 6)의 기본이 변한 것으로 보이나<sup>7)</sup> 원칙적으로 예배대상이 있는 주공간과 예배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착상으로 보여진다. 이는 인도의 아잔타 10·19굴의 차이티야 사원(그림 7)이나, 바자 12굴(그림 8), 엘로라(그림 9), 베드사, 칼리(그림 10, 11)등의 차이티야 사원에 있어 예배대상인 탑이나 불상이 있는 부분은 원형으로 처리하고 예배공간은 장방형으로 처리한 수법이 주공간의 보다 적극적인 분리를 위해서 구분되기 시작한 중국의 돈황 305·371굴(그림 12), 운강 9·10굴(그림 13), 천룡산 8·16굴(그림 14, 15), 용문 萬佛洞(그림 16)등에서 그 시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사실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분의 구성이 주실과 전실을 구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25) 이러한 구성은 기독교 사원에 있어서도 많은 예가 있는 것처럼 神을 모시는 주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생각이 그 출발점이라 여겨진다. 기독교 사원에 있어 소극적인 분리방법으로 Baldachino 를 설치하는 예와 일반 불교사원에 있어서도 예배대상의 상부에 보개천정을 건물천정과 별도로 설치하는 예들은 동일한 의도의 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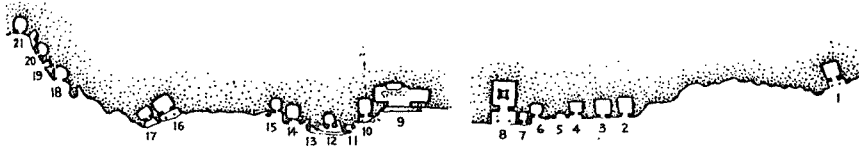


〈그림13〉 중국 운강의 석굴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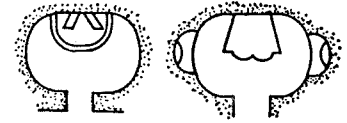


第1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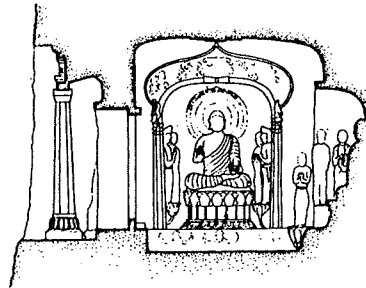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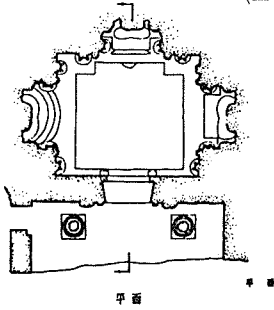
第9, 10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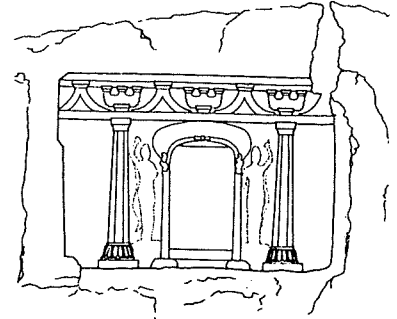
〈그림14〉 중국 천룡산의 석굴사원



第16, 17洞



〈그림15〉 중국 천룡산 16굴의 평면·단면·입면도



○ 主室의 形式

주실의 평면이 圓型으로 되어있고 천정이 돔으로 처리된 것 또한 인도 차이티야 사원의 한 변형으로 간주되나, 바미안의 석굴사원(그림 26)과 용문의 齊祓洞(그림 16)의 정사각형·팔각형·타원형등에 영향받았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또한 고분 축조방법에서 내부기능이 방향을 굳이 요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앙에 본존을 모시는 형식의 圓型으로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정의 돔형식은 차이티야 사원의 영향외에 산치의 스투파(그림 27)를 비롯한 돔형의 스투파에서 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도 있고, 돈황에서의 보개천정과 고분에서 적층식으로 쌓아올린 闌八天井(그림 17, 23, 25)이나 모서리에 버팀돌을 끼우는 수법(그림 19, 20)이 상징적인 하늘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버팀돌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정상부에 연꽃무늬 마감식으로 처리한 돔형식이 된 것이다. 또한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과는 달리 축조형 석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八角石柱

주실입구 양쪽의 팔각석주 또한 차이티야 사원의 열주 특히, 칼리나 베드사의 차이티야 사원입구의 팔각기둥(그림 11)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나 형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운강 9·10굴의 석주(그림 13)와 천룡산 16굴(그림 15), 맥적산 4·30굴(그림 28, 29)의 팔각석주에서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석주 또한 직접적으로 고분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바, 안악 제3호분(그림 22), 팔청리 벽화고분(그림 24)등이 그것인데 특히 쌍영총(그림 25)에서는 위치에 있어서조차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참배객의 시선을 방해하면서도 팔각기둥을 설치한 것은 현관부분을 구조적으로 보강하면서 입구의 상징적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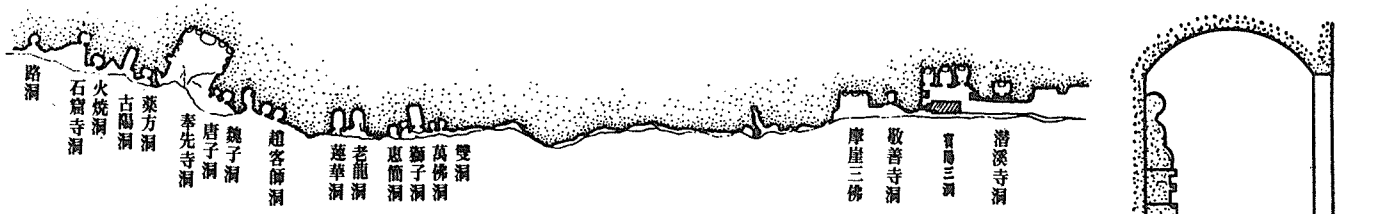
○ 前面入口와 龕室의 아치

인도·중국의 많은 석굴사원의 출입구 역시 아치형이거나 아치형 장식이 붙어 있는데, 천룡산 16굴(그림 15), 맥적산 30굴(그림 29)의 형식은 가장 유사한 것중 하나이다. 또한 아잔타 석굴내의 스투파(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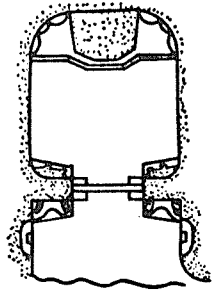
운강석굴에 새겨진 목조 스투파(그림 31), 돈황·운강·용문 석굴내의 감실 형식(그림 32)에서 그 영향을 가늠한다.

○ 佛像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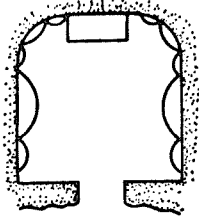
전실과 扉道 각 면에 八部衆, 四天王, 仁王像등을 배치시킨 것은 아마 인도의 아잔타 19굴, 칼리의 베스티 佛등과 중국의 돈황 302굴이나 용문 만불동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주실의 벽면과 감실에 십대제자, 십일변관음, 천왕, 보살상들이 좌우대칭적인 구도를 보이면서 본존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아잔타 26굴, 중국의 돈황 168굴·292굴, 용문의 桴鼓臺등에 보는 따위의 석가의 본생도나 경전상의 會上(그림 23) — 돈황 168굴에서는 후벽에 관음을 중심으로 십대제자를 배치시키고 있다. —을 그린 착상에서 본 뜻을 것이지만 이와같은 조화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창작품이다.\* 입구 양쪽에 인왕상을 배치한 형식은 분황사 모전석탑, 월성장항리 서오층석탑과 안동 조탑동 오층전탑에서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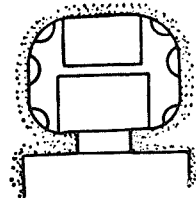
〈그림16〉 중국 용문의 석굴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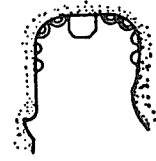
萬佛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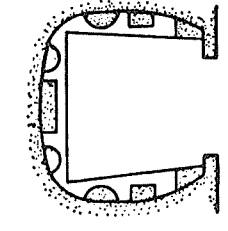
實陽中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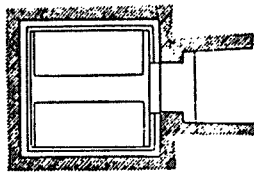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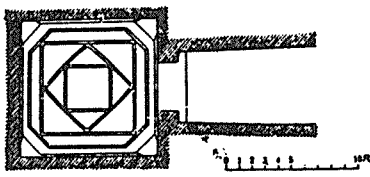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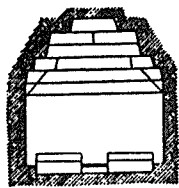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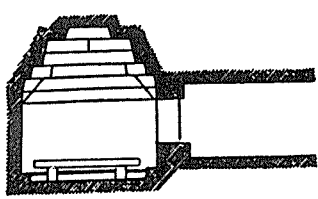
齋祓洞



奉先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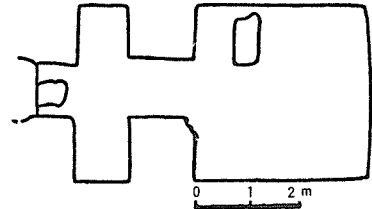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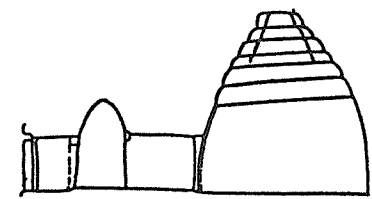


八作司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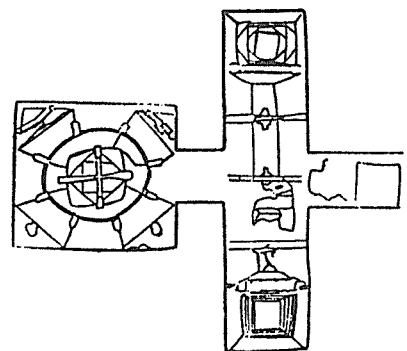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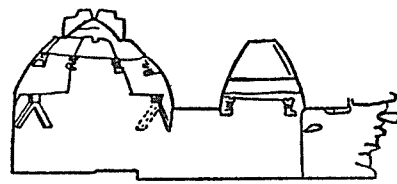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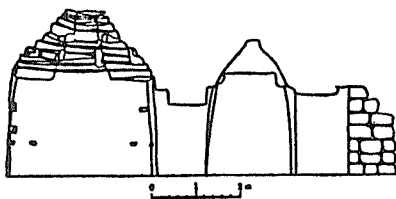


實測圖

〈그림17〉 江西大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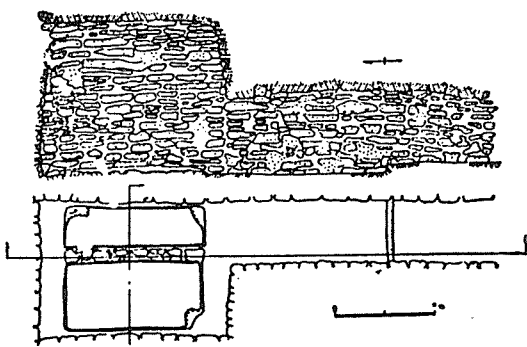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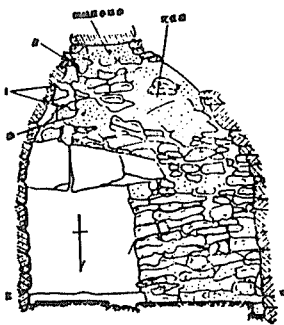


〈그림18〉 角抵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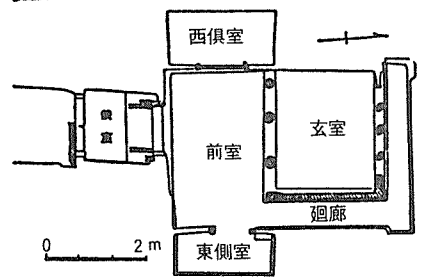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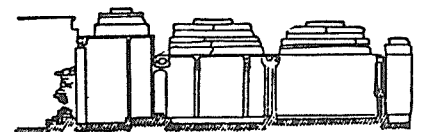


〈그림19〉 大安里 第一号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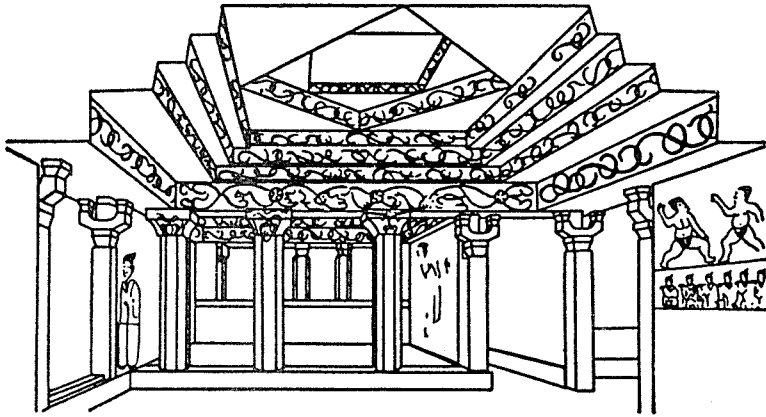
〈그림20〉 天天地神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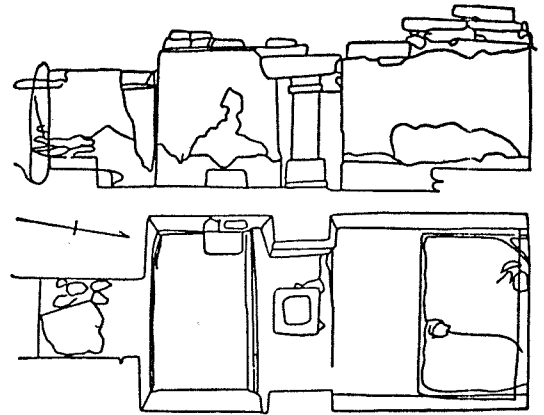
〈그림21〉 古衙洞壁畫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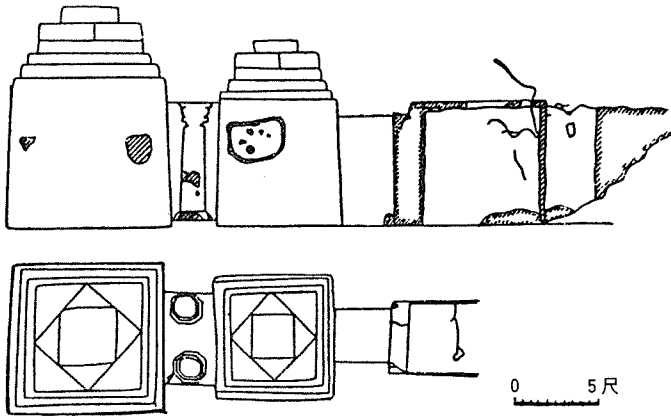
〈그림22〉 安岳第三号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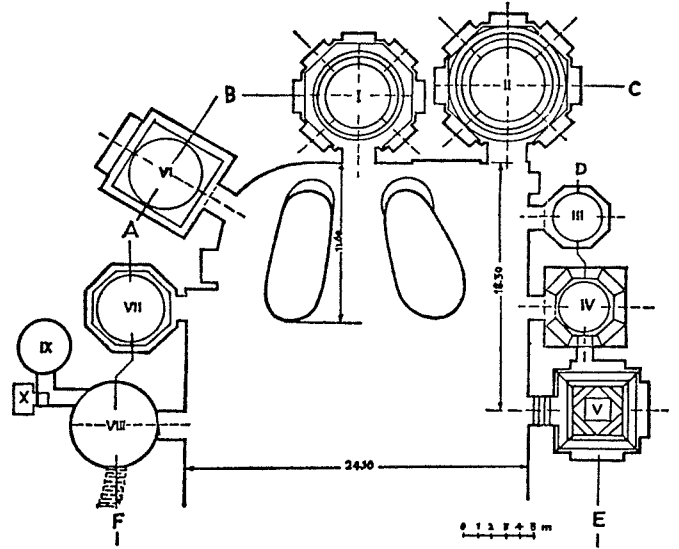
〈그림23〉安岳第三号墳 天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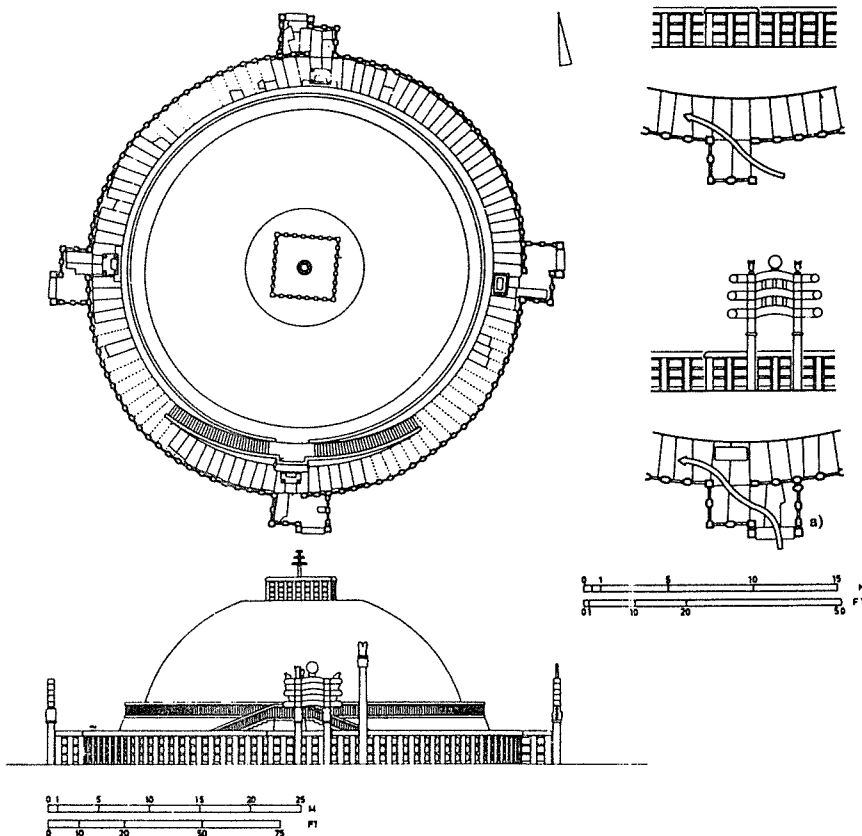
〈그림24〉八清里壁画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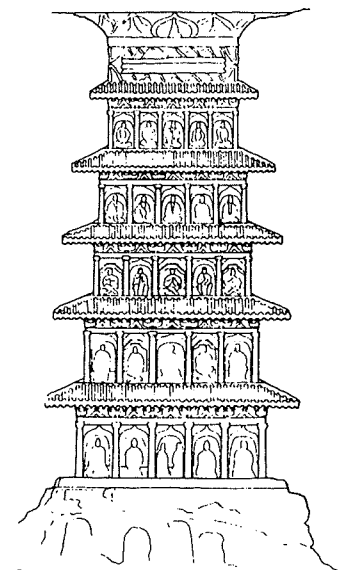
〈그림25〉雙椗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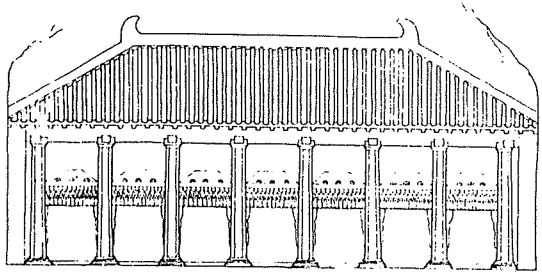
〈그림26〉인도바미안의 석굴사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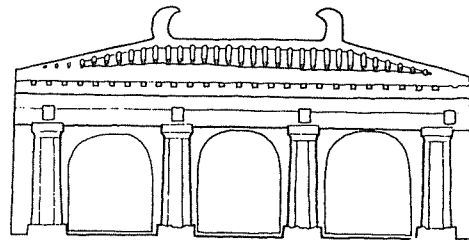
〈그림27〉인도산처의 Stu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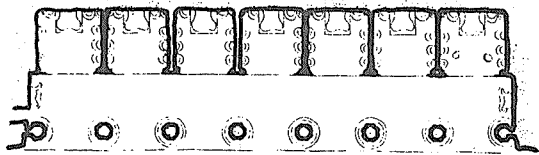
〈그림31〉운강석굴내에 조각된 목조 Stu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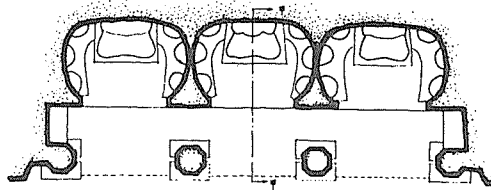
입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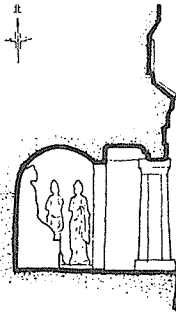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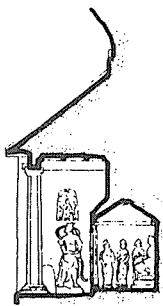
평면



평면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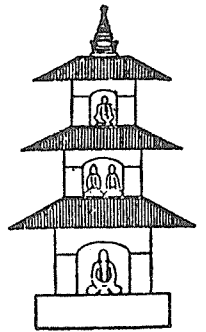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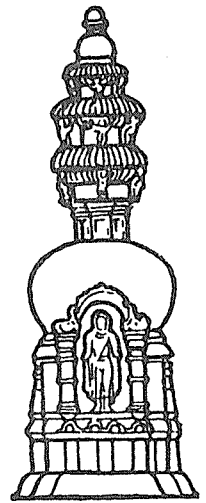
단면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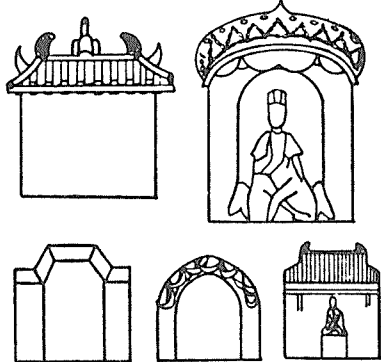
(그림28) 중국맥적산 4굴

(그림29) 중국맥적산 30굴



(그림30) 인도 아잔타석굴내의 Stupa

(그림32) 용문古陽洞龕室



□ 주



(그림33) 일본 호오류우지 금당의 벽화도식

- 1) I.Kant;Kritik Der Urteilskraft, (李錫濶역;판단력 비판, 박영사, 1984.) p. 194.
- 2) ibid. p. 91.
- 3) 두개의 빈감실을 포함하면 37개.
- 4) Dietrich Seckel;Kunst des Buddhismus, (白承吉역;佛敎美術, 悅話堂, 1985.) p. 150.
- 5) 文明大;한국의 석굴사원 연구, <역사학보>제38집, 1968. pp. 264~266
- 6) 석굴암과 고분의 기술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 7) 황수영;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9, p. 138.
- 8) 문명대 ;op.cit p. 327.

《다음호에 계속》